

인도네시아 주간 경제 동향 (2023. 2월 2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3.2.10.금)

1. 공급망 협력 강화 : 인니-미국 프렌드쇼어링 추진

반도체 등 전자분야, 통신망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화학원자재, 전략 광물 분야

2. 다운스트림화 정책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코모디티 수출 중단

다운스트림화 통해 Global Key Player로 도약 목표

PT Freeport 그르식(Gresik) 제련소 2024년 5월 가동

해양부존자원 활용한 다운스트림화 필요성

3. 산업 동향

발리 사누르(Sanur) 의료보건 경제 특구 활성화 추진

제약 산업 : 연구 절차 지연으로 혁신의약품(신약) 개발 부진

농업 기계화·현대화 : 농기구·기계 구매 지원 사업(Taksi Alsinta)

4.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의 어려움

5.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온라인 허가시스템(amdal net) 출범

환경관련 허가 절차 용이성, 신속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기대

6. 경제 일반

통계청 “2022년 경제성장률 5.31%, 10년 만에 최고”

가계 소비력,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진 않아

경기 회복 중... 우수 산업 분야 회복은 아직

재무장관 “인도네시아 재정상태, 건전”

공급망 협력

□ 印尼-美國 공급망 협력: 프렌드쇼어링 추진

(출처 : Media Indonesia 지면/온라인 2.9)

※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 동맹 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 코로나19사태, 중국의 도시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자 對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됨(출처: 매일경제 사전)

-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① 반도체 등 전자분야, ② 5G 등 통신망 인프라 구축, ③ 신재생에너지 ④ 화학원자재, ⑤ 전략 광물 분야에서 미국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추진 중

※ 엘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미국의 공급망 교란 현상이 나타나자, 관련 대책으로 프렌드 쇼어링 계획을 수차례 언급

-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는 2.8 “Can Indonesia Boost Investment through Friendshoring” 제하 토론회를 개최한바, 주요 참석 인사의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음.

① (누를 이흐완(Nurul Ichwan) 印尼 투자부 투자진흥 차관보) 미국의 공급망 유지 노력 관련,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신흥 시장이 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가 공급국으로 도약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프렌드쇼어링으로 미국은 시장다변화가 가능하고, 인도네시아는 투자유치 확대와 다운스트림화 강화 가능
- 특히,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 분야가 강점인 만큼, (프렌드쇼어링을 한다면) 2050년에 광물 자원 수요를 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John Gardner 워싱턴 경제개발 공공정책위 부위원장/Public Policy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유망한 국가이나, 국제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표준을 갖추어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바홀릴 印尼 투자장관) 국가 간 협력을 과정에서 협력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다운스트림화

□ 印尼, 2040년까지 21개 코모디티 원자재 수출 단계적 중단

(출처 : Media Indonesia紙 2.7, CNN Indonesia 2.9)

※ 21개 Commodity (석탄, 니켈,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철강, 금·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석유, 천연가스, 팜(sawit), 코코넛, 고무, 바이오연료, 목재(kayu log), 송진, 새우, 수산물, 청색꽃게(rajungan), 해조류(rumput laut), 소금) / 8개 투자 역점 분야로 구분 ①광물자원 ②석탄 ③석유 ④가스 ⑤플랜테이션 ⑥해양 ⑦수산 ⑧산림

- 바홀릴 투자장관은 인도네시아 투자 로드맵의 핵심은 다운스트림화라고 강조하고, 21개 코모디티(commodity)*에 대한 다운스트림화에 성공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
 - 2040년 다운스트림화 투자 목표액은 5,453억불
- 정부의 원자재 수출 중단 계획 관련, Yusuf R. Manilet 경제개혁센터(Core, 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경제학자는 단계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상기하면서 아래 부연
 - 향후 5년간 제련소 건설 준비에 영향을 없는지 검토 필요
 - 21개 코모디티 관련 투자자 유치 구체 계획 필요
 -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망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수 전망 분석 필요
 - 당장 5년내 수출금지를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 품목도 있을 것인바, 수출 중단 전환기(transition period)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예측 필요
- 한편, Ronny P. Sasmita, Indonesia Strategic & Economic Action Institution 선임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급작스러운 무역 개입을 해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수출 중단 정책이 실행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면서 아래 언급
 - 내수 공급 과다로 인한 파급 효과(가격 하락, 광산업 운영 임시 중단 등)에 대비한 대체재 필요
 - 산업계와의 안정적인 내수 가격 관련 합의 필요
 - 보복 무역 조치 및 불법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

□ 경제조정부 “印尼 코모디티 기반 다운스트림화 통해 Global Key Player 되겠다” (경제조정부 2.3 보도자료)

- 인도네시아 정부(경제조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소비 진작, 장기적으로는 경제 대전환(economy transformation)을 지속하여 경쟁력·투자·생산성·일자리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Global Key Player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발표

*경제언론사(Warta Ekonomi) 주최 2023 Economic & Business Outlook 제하 웨비나(2.3) 제기

- (코모디티 기반 산업화 추진 3대 역점분야) (1) 올레오 케미컬 등 농업 기반 산업, (2) 광물·금속 제련 등과 같은 광업 기반 산업(보크사이트, 주석, 니켈 등 우수 광물 금속 다운스트림화), (3) CTM(Coal-to Methanol) 프로젝트 등 석유가스·석탄 기반 산업

□ 마루프 아민 부통령 “2024년 5월 PT Freeport 제련소 가동, 낙관” (에너지·광물자원부, 2.7 보도자료)

-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2.7(화) 동부자바州 그르식(Gresik) 지역의 자바통합산업단지(JIPE)내 Freeport Indonesia 제2 제련 공장 건설 부지를 방문, “그 간의 진행 경과를 보면 목표했던 것 보다 2% 앞서가고 있는 만큼, 2024년 5월 전에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언급

- 그르식(Gresik) 제련소는 올해 12월 건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4년 5월 생산 시작, 2024년 12월에 상업운전(COD)를 할 예정

- 그르식(Gresik) 제련소에서는 ▲정광을 구리 양극재로 가공하며, ▲전기차(EV)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니켈, 알루미늄, 리튬, 코발트도 생산.
▲ 귀금속정련설비(PMR)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는 골드바(gold bar)/실버바(silver bar)도 생산이 가능
- 그르식 제련(smelting) 공장이 가동 되면, 애노드 슬라임(양극 찌꺼기)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100% 정제될 것임.
- 제련소 인력으로 1만 1천여명 고용 예정(인도네시아 인력(98%) 중 50%가 동부자바 지역 주민)

□ 조코위大, 금융감독원(OJK)에 다운스트림화 지지 당부

(출처: 내각사무처 2.6)

*아래 조코위 대통령 2.6(월) 금융서비스산업 연례회의 개최사 중 다운스트림화 관련 발언

- 금융감독원(OJK)이 다운스트림화 산업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함.
 - 제련소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음.
 - 다운스트림화는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관건이 될 것 인 만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함.
- 2018년 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중저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였다가 2018년에 중상위 소득국가(upper middle income)로 올랐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중소득국가로 떨어졌으나, 지난해(2022)에는 다시 중상위 소득국가로 올랐음.
 - 이러한 경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가 바로 다운스트림화임.
- (해양부존자원 다운스트림화) 인도네시아는 3분의 2가 해양인 만큼, 해양자원을 다운스트림화한다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해조류 수출국 1위이지만 카라기난(carrageenan,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중점제 성분의 식품첨가제)* 수출은 3위임.
 - 중국은 해조류 수입국 1위지만, 카라기난 수출은 1위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점을 벤치마킹해야 함.
 - *카라기난(carrageenan)은 김이나 우뚝가사리 등 홍조류에 포함되어 있는 중점제 성분으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또 다른 예를 들면, 중국은 참치 수입국 2위인데, 어분 분말 수출국 4위임.
 - 인도네시아는 참치류 수출국 1위인데 반해, 어분 분말 수입국 1위임.
 - 해양부존자원을 다운스트림화 한다면, GDP가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산업 동향

- 발리 지역 경제특구(KEK, Kawasan Ekonomi Khusus) 육성: 보건·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경제조정부 2.4 보도자료)

*에플랑가 경제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경제특구위원회(Dewan Nasional KEK) 위원장

- 인도네시아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경제 특구는 ▲디지털 경제특구, ▲MRO(Maintenance-Repair-Overhaul) 경제특구, ▲교육 경제특구, ▲관광 경제특구, ▲보건·의료 경제특구가 있음.
 - 특히, 발리 지역 2개 경제특구(KEK Kura-Kura Bali, KEK Sanur)를 활성화하여 발리의 관광업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발리 쿠라쿠라 경제특구(KEK Kura-Kura Bali, 487ha, 덴파사르 소재)는 통합 마리나(Integrated Marina) 형태의 경제특구로서, 여기에는 교육·테크 교육훈련센터(Center for Excellence for Education and Tech Park),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센터(Lifestyle Wellness Center) 등이 조성될 예정

*투자액은 104.4조 루피아, 99,853명의 고용창출 기대. 2052년 운영 목표, 2052년까지 누적 477조 루피아 상당의 외환보유 가능

- 사누르 경제특구(KEK Sanur)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보건의료 경제특구로, 작년(2022) 7월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투자 실현 예상액은 10.2조 루피아, 4만 3천 여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 사누르 보건의료 경제 특구가 활성화되면, 해외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되었던 외환을 86조 루피아만큼 줄일 수 있으며, 2022년부터 2045년까지 누적 19.6조 루피아 만큼의 외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 Erick Thohir 공기업부 장관은 해마다 2백만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의료 관광을 가고 있고, 연간 97.5조 루피아가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2023.1.16. Merdeka 보도)

※ 사누르 경제특구(41.26ha)에는 미국의 마요 클리닉(Mayo Clinic)과 협력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갖춘 병원을 설립하고 있으며, 호텔(Hotel Bali

Beach/Grand Inna Bali Beach, 수카르노 초대대통령이 설계한 호텔을 재정비), 컨벤션센터 등도 마련될 계획임. 해외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인니 국민)의 4-8%가 사누르 경제 특구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30년에는 동 경제 특구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12만3천명~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Liputan 6, 2023.1.16. 보도)

□ 제약 산업 : 연구 지연으로 인한 신약 개발 부족

(출처 : Kompas紙 2.10)

- 혁신의약품(신약) 개발 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허가 절차 또한 예측불가해 혁신의약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의 제약협회(PhMRA) 연구 결과, 인도네시아의 혁신의약품 비율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20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동남아에서는 베트남과 유사하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보다는 낮은 수준임.
 - 혁신의약품 개발은 임상시험과 연관이 있는데, 미국계 제약사(IQVIA) 조사 결과, 2015-2020년간 인도네시아의 동남아 내 혁신의약품 개발 기여도는 4% 밖에 되지 않았음.
 - 원인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까지 1.5년이라는 허가 획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 「물질 이전과 사용에 관한 보건부 장관령(2020년 제 20호)」에 의거해 발급되는 물질이전계약(MTA, Meterial Transfer Agreement)*를 받는 데에만 1년이 소요돼, 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도중에 중단되는 연구프로젝트도 일부 존재
- *임상 시험 물질을 해외 연구기관에 보낼 수 있고, 인도네시아 기관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허가
- Roy Himawan 보건부 제약안보·의료기기국장은 반드시 해외에서 임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물질이전계약(MTA) 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MTA허가 발급 수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
 - 인니의약품연구회(IASMED) 측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2년에 ‘연구

허가 행정 절차 간소화 정책' 을 마련해, 허가 절차 기간을 총 5-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1.93억불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Nina Dwi Putri 인도네시아대학(UI) 의예과 연구원은 혁신의약품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평가

□ 농기구·기계 지원 사업(Taksi Alsintan)으로 식량 생산력 제고 추진

(출처 : Rakyat Merdeka紙 2.10, 3개 기사 종합)

※알신탄(Alsintan)은 농기구·농기계(alat dan mesin pertanian)라는 뜻의 줄임말. 택시 알신탄(Taksi Alsintan) 사업은 농업부가 작년(2022) 8월 출범한 농기구·농기계* 구매 지원 사업으로 정보지원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융자모델이며, 정부가 이자 보조금을 지급함. (*쌀도정 기계, 건조기, 콤팩트, 트랙터 등)

- 야신 립포 농업장관은 2023년 식량·경제 위기에 대비해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농기계화를 지속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작년 농기구·기계 구매 지원사업(융자) 구매 실현액은 113.43wh 루피아로, 농기계를 구매하려는 농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융자 상환율도 매우 높음(상환지연 0.6%, 상환율 99.4%)
 - 다만, 일부 지방에 농기구·기계 렌탈·구매 대행업자(소규모)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 경제조정부는 농기구·기계 구매 지원 사업 융자 관련 장관령을 제정할 것임.
 - 동 법령에 제정되면, 선금 10%, 은행이자 3%로 최대 20억 루피아를 빌릴 수 있음. (현재는 Taksi Alsintan 사업을 통해 5억 루피아를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선금은 30%, 은행이자 6%임)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식량 손실율(food loss)이 12~13%로 높은 편인데, 농기계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농업부 농기계화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농기계화는 선진국은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뒤쳐져 있다면서 농기계화가 되면 1년에 한두번 경작하던 것을 3-4번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함.

*국가별 농기계화 지수 : 인니 2.1HP(마력), 말레이시아 2.4 HP, 태국 2.5HP, 미국 17 HP, 일본 16 HP /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5.3HP 목표

※ 현재 4륜 트랙터(TR4) 수요는 최대 59,712 (현재 TR4 12,878대 보유, 즉 46, 834대 필요) / 2륜 트랙터(TR2, 경운기) 총 수요 298,558대 (현재 보유 152,864대) / 배낭형 농약 분무기(hand sprayer), 벼 이앙기(rice transplanter), 펌프, 콤바인 등도 필요.

- 농업부는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후에 농기계 수리, 부품 사업 등과 연계할 계획

디지털 경제

□ 데이터 센터 사업의 험난한 길

(출처: Bisnis紙 2.8)

- 인도네시아내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은 유망한 사업이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스타트업도 속출하고 있음.
- CB Insights 조사 결과,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유입된 자금(벤처캐피탈)이 34.98%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에는 자본총액이 10억불 이상인 스타트업이 전년대비 52.13% 정도 줄어들었음.
 - 인도네시아는 2022년 한해, 전년대비 유니콘 기업이 38% 감소하였음.
- 신생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유니콘 기업의 서비스도 중단되고 있음.
 - 중국의 징둥(JD. com)의 자회사인 JD.ID는 올 3월말부로 인도네시아 진출 7년만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 헤루(Heru) ICT Institute 소장은 “스타트업이 한파를 느끼면 데이터 센터 사업에도 영향” 이 있다고 지적

- Teddy 인니데이터센터협회(Inpro) 사무총장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업계가 위축된 원인 중 하나” 라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
- 국영통신사 텔콤(Telkom)은 데이터 산업이 유망하다고 보고, 지속 확장해 나갈 방침인바, 2024년까지 텔콤 데이터 생태계(TDE, Telkom Data Ekosistem)를 구축해 데이터 센터 사업을 상호연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싱가포르 Twimbit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가치는 GDP의 14%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印尼 정부 행정 혁신 (디지털 전환)

□ 환경부 암달넷(amdalnet) 출범

(출처 : Media Indonesia紙 2.8, 환경부 홈페이지 소식 2.9)

-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2.7(화) 인도네시아 환경영향평가(amdal) 온라인허가시스템(amdal net)을 출범하였음.
 - 암달넷(amdal net)은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 기반의 사이트(WebGis)로 투자부 온라인통합인허가(OSS)-리스크기반접근(RBA) 시스템의 하위시스템
- Siti Nurbaya 환경부 장관은 온라인허가시스템을 통해 환경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이 비싼 점, 허가 신청 급증하고 있는 점 등 기존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동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허가뿐만 아니라 맹그로브 복구, 이탄지 복원 등 지역사회 환경보호 동참 사업 정보도 얻을 수 있음.

경제 일반

□ 통계청 : 2022년 경제성장률 5.31% 10년 만에 최고

(출처: Detik News, 2.6)

- Margo 통계청장은 2022년 경제성장률이 2013년 5.56%이래로 가장 높은 5.31%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 구매력이 잘 관리됐고 인구 이동 등 사회활동도 회복돼 국가 경제 상황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연 5%대로 회복됐다고 평가하였음.

□ 가계 소비력, 아직 완전히 회복 되진 않아

(출처 : Kompas紙 2.7)

- 작년(2022)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5.31%로 나타났으나, 가계 소비력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은바,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통제해 나가면서 올해 라마단-르바란 등을 잘 활용해 소비진작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작년 경제성장률 5.31%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경제성장률 5.02%에 비해 높은 수치
- 2022년 가계소비력은 4.93%로, 팬데믹 이전 가계 소비력 5.04% 만큼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Margo 통계청장은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2022년 인플레이션은 5.51%, 2023년 1월 인플레이션은 전년동기 대비 5.28%로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인플레이션을 2~4%를 웃돌았음.
 - 참고로 2019년 인플레이션율은 2.72% 였음.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 지출이 2019년보다 둔화된 이유는 소비자 지출 그룹 중 특히 식음료 소비(외식 제외), 가계 집기 및 주거, 의료, 교육 분야 소비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사트리아(Satria), 바하나 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업률이 아직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아 가계 소비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

□ 경기는 회복중이나, 우수 산업 분야 회복은 아직

(출처 : Kompas紙 2.9)

- 최근 통계청이 경기 회복 지표들을 발표했지만, 수출 수요 감소로 가공 산업 분야의 경기 회복은 더디며, 특히 일부 가공 산업 하위 분야(식음료, 담배, 섬유·의류, 제지, 가구, 화학, 제약 등)는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가공 산업 하위 분야의 일부 하위분야만 합해도 가공 분야의 50% 이상을 차지
 - 섬유 산업 소비의 경우 미약하게나마 회복중(2019년 4.27%, 2022년 4.28%).
- 인도네시아 산업부 농업 총국장은 “소비자 구매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식음료 산업 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가구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함.
 - 가구업자협회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가구 산업이 8.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
- 새로운 수출 활로 발굴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 공조가 필요함.

□ 재무장관 : 인도네시아 재정 상태 “건전”

(출처: Media Indonesia 紙, 2.6)

- 스리 몰야니 재무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적격 등급은 BBB(신용상태 적절)로, 이는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는 A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언론사(Media Indonesia) 주최로 2.3 열린 “정치적 해 : 인도네시아 경제·재무(fiscal) 현황” 제하 강연 계기 언급
-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부채는 7,733.99조 루피아로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39.57%**이며, **국제 협정기준이 국가채무비율(60%)을 한참 밑도는 안전한 수준**
 - ※ 인도네시아 채무 비율 : 국고채 비중 88.53%(Rp 6,846.89조), 나머지 11.47%은 국내 차입 2.27% (Rp 19.67조)와 해외 차관 9.2% (Rp 867.43조). 끝.